

미니멀리즘을 통한 현대실내공간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Korea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Interior Space by Minimalism

이창윤* / Lee, Chang-Youn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Nowadays minimalism has influence on Korean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at the turning of new generation. Minimalism is a plural phenomenon that has developed from Modernism to Contemporary but there is the tendency to define minimalism within Architecture and Art. Also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disordered minimal aspects in Architecture. This study is started from accurate understanding the mistakes in the field of Interior Architecture, that are brought by the elapse of time, and analogizing the circumstances of Interior Architecture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lation between the minim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stagnancy of Korean Architec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exist in Korean tradition, this study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in western modernism to analyze the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that the assumption is applied to.

키워드 : 미니멀리즘, 현대실내공간, 한국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인식하는 일제해방 이후 서구의 문화와 건축양식의 무분별한 수용 속에서 발생한 혼란과 방향은 연속이었다. 우리의 역사가 타율적인 역사가 아닌 자율적인 역사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줄속한 근대화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냉철한 분석에 의해 밝혀 놓아야 할 문제는 너무도 많다. 더구나 그 문제들은 갈피 잡을 수 없을 만큼 얽혀져 있다. 그리고 한국건축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위한 노력으로써 현재 더욱 부각되고 있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 즉 전통성을 회복하려는 작업들이 현실과 부합시킨 작업 속에서 건축가들의 인식적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축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건축계가 편협한 시각에서 전통을 해석하거나 서구의 건축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것을 봄으로써 많은 부분을 왜곡 전달시켜 현재의 건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직설적 형태언어를 반복하고 건축

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 무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상호 교류적 성격을 갖는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현대 건축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적 흐름 중에서 일부 건축가들이 미술에서도 역사적 반향을 나타내고 있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전통성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써 적용하고 있는 실험적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통 속에 미니멀리즘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한 현대한국 건축의 실내공간들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공간의 미니멀리즘적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연구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특히 한국전통 속의 미니멀리즘적 특징을 돌출하기 위해서 과거 전통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아닌 현대한국 건축 및 실내건축의 현상 중에서의 전통적 요소를 응용한 미니멀리즘적 작품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 요소 속의 미니멀리즘적 특징을 유추해 보았다. 즉, 현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대의 현상을 토대로 과거의 본질을 분석하는 환원적인 관계설정의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한국적 미니멀리즘 특징을 서구의 기술적 미니멀리즘과 지역적 미니멀리즘 중에서 본 연구는 후자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적 미니멀리즘 속에 내포된 “지역성의 개념”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위한 용어사용 중 전통성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동일성 유지라는 관점 즉, 현재의 우리 삶과 괴리되지 않는 전통성 개념의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전통적(성)”이 아닌 ‘유기적 연속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지닌 “한국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요소를 지닌 미니멀리즘적 특징의 공간들을 연구의 진행상 한국적 미니멀리즘¹⁾으로 함축하여 총칭하였다. 그리고 이 경향과 관계성을 띠고 있는 지역적 미니멀리즘의 지역성에 대한 의미 해석 범위 속에 딘(Darron Dean)이 규정짓는 ‘naive, indigenous’의 개념인 버나쿨라(vernacular)²⁾³⁾와 과거에서 현대로 연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전통성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건축중심에서 관찰된 문화가 아니라 문화 속의 건축을 관찰하기 위한 건축이외의 문화 주변적 영향을 관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 미니멀리즘의 이론적 분석

2.1. 예술에서의 미니멀리즘 특성

미니멀리즘의 개념적 특징은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건축, 과학, 문학, 음악, 패션⁴⁾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미니멀 아트를 통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의미가 배제된 시각적 규범 내지는 게슈탈트 심리학적 입장의⁵⁾ 시각적, 형태(Shape)중심적 리터럴리즘⁶⁾에 입각하고

1) “한국적 미니멀리즘”은 98.11.13 경원대 조형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 현대미술과 정체성’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적 미니멀에서 나타난 한국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광석씨(조형예술학 박사)의 연구내용에서 인용하였다.

2) 김희영, 현대 버나쿨라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과 이를 사유화하는 디자인의 작업논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p.11

3) 버나쿨라(vernacular)는 ‘일상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잃어버리고 스타일만 남은 디지털 언어와 통속적이고 자생적인 요구에 의해 형성된 지역 환경을 이루는 소재’로 정의할 수 있다.

4) 미니멀리즘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일본의 전통건축, 웨이커교도의 가구 등의 건축 역사에서와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 또는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알랑 로브 그리에(Alan Lobe Grier)의 엄격함,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의 연극 등 1950년대의 문학, 에릭 사티(Erik Sati)나 미카엘 니만(Michael Nyman)으로부터 필립 그라스(Philip Glass)와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 그리고 존 케이지(John Cage)에 이르는 미니멀리즘의 음악과 패션에서의 60년대 복식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단순한 실루엣, 칼라, 슬라브 등 디테일의 생략, 나아가 장식이나 악세사리의 생략 등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형태에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정숙, 현대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호, 1997.12, p.151)

5) 게슈탈트(Gestalt)란 인간이 시각의 전체모습을 인식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시각 이미지에 게슈탈트를 적용시키는 일은 인간 반응의 실제와 인간 유기체의 자연스런 시각 활동을 다루는 것이다. 단일한 형상들은 쉽게 인

있다. 그러나 먼저, 형태지각적 분류이외에 ‘내용적’부분을 고려할 때 미니멀 아트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는 해도 엄밀하게 말해 미니멀 아트라는 말로 규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즉 미니멀 아트라는 용어보다도 대상(Object)의 내용적 작용으로서의 ‘리터럴리즘(literalism, 卽自性)’이라는 말로써 더 적절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니멀 아트의 형식성을 시지각적 즉자성과 장소성으로서의 즉자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지각적 즉자성(literalism, 卽自性)

미니멀리스트들은 지각의 본질적 요소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물 그 자체를 제시하려는 환원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시각적 요소로 보았을 때, 미니멀 아트에서의 기하학적 형태는 시각적 체험을 유발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전체 형태는 그 부분들이 인식되기 전에 먼저 파악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게슈탈트(Gestalt)이론과 일치한다. 시각적 요소에 중점을 둔 ‘형태지각이론’에 대한 도널드 저드(Donald Judd)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iss)의 적용에 입각하자면 이것은 한눈에 동시에 파악되어져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리터럴리즘’이다. 저드와 모리스는 오브제의 실제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리스와 저드는 기초적 다면체를 사용한다.⁷⁾ 또한 저드가 예술의 본질이라 생각해 왔던 것을 제거하는 것과, 미적 특질을 피하는 것으로 작품을 한다는 모리스의 표명은 그대로 부응한다. 이것은 어떤 미학적 감동이 없는 사물의 무관심성으로 말하려 했던 뒤상(Marcel Duchamp)의 ‘시각적 무관심성’에 기초하였던 그의 레디메이드(ready-made)와도 관련을 보인다.⁸⁾ 즉,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명석함을 드러내는 순수한 대상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3차원의 공간의 확장을 시도한다. 3차원 공간의 확장에 있어서 그들은 한 단위로서의 작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에서의 순수대상으로서의 취급으로 발전하여 확산된 공간의 구조화를 향한 환경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장소성으로서의 즉자성(literalism)

미니멀 아트의 체험은 어떠한 상황 내에서의 대상에 대한 체험이다. 그것은 관람자를 포함한다. 이들의 작품은 작품과 그것이 생산된 공간, 빛, 그리고 관람자의 시각의 장(場) 사이의 관계를 취한다. 미니멀리즘으로 인해 조각은 더 이상 좌대 위에서 있다거나 혹은 순수 미술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대상들 사이에서 그

식되는데, 이런 점에서 단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즉각적 인지는 완전하고 보편적인 형상으로 일반적인 이미지의 총체로서 나타난다는 게슈탈트 이론과 일치한다.

6) 리터럴리즘(literalism)의 어원은 ‘글자 그대로의, 어구에 충실한, 본래의 뜻에 있어서’등 상상력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리터럴리즘은 형태에 대한 지각이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7) 오브제의 실제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리스(Moriss)와 저드(Judd)는 기초적 다면체를 사용한다. 그런 다면체는 즉각적으로 시각화되기 때문이다. 홍명섭, 전환기의 현대 미술, 숲, 1996, pp.192-193

8) Carla Gottlieb, Beyond Modern Art, (New York : E.P.Dutton, 1976), p.328

위치를 다시 정하고 장소의 면에서 재정의될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관람자를 형식미술에 보이는 분명한 독자적인 공간을 거부하고 '지금, 여기(here and now)'라는 시간과 장소로 되돌아오게 한다. 즉 주어진 장소에서 특정한 개입에 의한 지각의 결과를 탐구하도록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지각적 즉자성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즉 분리의 관점에서 각각의 작품들은 독립성을 띠지만, 장소를 매개로 하나로 모였을 때 시지각적 즉자성에서와 같이 "전체성"을 보이게 된다.

(3) 미니멀 조각과 회화의 3가지 특징

미니멀 아트의 개념은 기존의 미술적 경계를 허무는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미술에서의 조각과 회화라는 분류개념조차도 스스로 예술로써 지니게 되는 한계성으로 보고, 회화의 2차원적 캔버스로부터의 이탈과 3차원적 조각이 회화로 회귀하는, 등의 극단적인 시도들에서 모든 관념에 대한 항거, 부정 또는 떨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미니멀 아트에서는 조각과 회화의 특징은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3가지로 그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 대상의 본질(本質)

미니멀 아트는 특별한 매개체의 본질을 결정하려는 입장에서 이 양식은 최소한의 감각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환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원성의 개념 속에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세계에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세계란 인식에 선행되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인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도 항상 그 세계에 대한 것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마치 우리가 맨 처음 숲이나 들판 그리고 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풍경과 지리학의 관계에 있어서처럼 그 세계에 관해서 모든 규정이 추상적이 되고, 또한 그에 관해서 모든 규정이 의미가 있게 되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바의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⁹⁾ 미니멀 아트의 수학적 체계, 기하학적 형식, 산업원료 그리고 공장 생산물과 같은 '기성품'에서 미술을 창조하면서 미리 예상된 지적인 접근 방식과 완전한 자기 배제성은 환원적 형식주의였다.

- 중성적 비내구성

미니멀 아트에서는 작업에 개념이나, 사고, 철학, 이성, 의미, 그리고 작가의 인간성까지도 배제하는 오로지 미술 그 자체만 존재하며 그것이 전부라는 중립적 자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산업용 재료들의 그 특수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중립적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단순한 형태로서 있는 그대로든지, 또는 일련의 반복되는 동일한 기본단위들로서든지 단순하고 확률적이며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선호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평범한 공업적, 산업물질로 만들어진 제조물로서 공업과 과학기술을 작업에 이용하

로 오브제의 다양성과 스케일은 작가가 사용하는 물질과 형태의 중성화로 미니멀 조각의 관념적 가치를 결정하였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인 어떤 것을 보여주며, 작품에 있어서의 기술적 숙달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보여줌으로 미니멀의 순수성을 주장했고, 이러한 재료의 선택이나 그것들을 조립하는 방법에서도 조각된 형태의 내부성을 부인하려고 했다. 즉 최소한 어떤 형태의 내부를 그들이 갖는 의미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의 중성적 비내구성은 예술작품의 환상적인 중심이나 내부성과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의미와 특별한 근원의 논리를 재평가하고, 작품의 근원을 대상물의 단순한 외형으로부터 재위치 시키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획일성과 변화성의 반복

미니멀 조각에 있어서 표준 단위들의 반복은 부분적으로는 실용적인 고려에서 시작된다. 급진적, 전체적, 통일된 경향이 있으며, 민감한 것이나 효율성 모든 영향의 명료성을 제거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배제한다. 이처럼 작품은 조직적인 구성들과는 비관련적이다. 그것들은 대개 반복을 강요하며, 이 반복은 다소 간단한 교환에 기초하며, 전통적인 작업이나 적용된 방법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없으나 전반적으로 작품과 관련이 있다. 공간에서의 반복은 획일성 반복과 변화성 반복이 있으며, 한 단위의 획일성 반복은 강한 통일성을 주며, 명백하고 강조된 효과를 가지며, 규칙적이고 일양(一樣)하며 단조로운 순열로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획일성 반복은 변화, 대비 독립성이 없는 이유로서 단조롭고 흥미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끊임없는 반복은 고요한 마음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변화성 반복은 자연 질서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雪)의 결정들은 6각형 안에 방사형의 반복을 이루고 있지만 수 억 개의 결정들은 어느 하나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 이처럼 대자연은 방사 상의 테마를 반복하여 무한한 변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성 반복은 하나의 단위와 테마 혹은 모티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면들과 성질, 사항들을 반복하므로써 만들어지고 있다.¹⁰⁾ 하나 하나의 미니멀 조각은 이처럼 끝이 없는 사슬처럼 반복적인 방식으로 배치된 동일하고 상호교환이 가능한 기본단위들의 단순한 정렬로 이루어져 입체주의적 동시성을 형태에 기반을 둔 '즉자성'과 이런 작품이 관객을 하나의 환경 전체로 에워싸 버리는 '전체적인 상황'(전체성)¹¹⁾으로 인식하게 한다.

2.2. 공간에서의 미니멀리즘 특징

통일된 양식운동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회화와 조각 분야에 국한된 운동이었다. 기준이 되는 강령들을 더함으로써 양식의 한계를 정의하려는 다른 건축 운동들과는 달리 미니멀리즘은 그

9) M. Merleau-Ponty, 현상학과 미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7, p.26

10) 마이클 클라이브,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역, 이화대 출판부, 1989, pp.69-75
11) 에네슨, H.H, 현대미술의 역사, API 인터내셔널, 1991, p.529

러한 것들을 줄이려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의 실용적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건축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기준은 상치될 수 있다. 건물의 종류나 프로그램 혹은 대지상황이나 법규 등과 같은 실용적 조건들에 의해 주어지는 기능적 한계가 건축가에 의해 설정된 조형적 최소치를 넘어버릴 경우 미니멀리즘은 처음부터 성립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건축가들은 일관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미니멀리즘으로 제시되는 건축적 내용들의 편차 또한 건축가의 개개 건물에 따라 큰 것이 사실이다. 현대건축 운동을 정리하는 이론가들이나 건축사들도 미니멀리즘을 독립적인 양식운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운동 중에는 하나의 건물을 존재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기준을 찾는 작업이 공통적 경향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칭하여 미니멀리즘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¹²⁾ 다음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공간적 관점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6가지의 틀로써 분석할 수 있다.

1) 미니멀리즘 공간에서 불변과 변화의 관계는 단순성에서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니멀리즘의 형태적 개념으로 단조롭기 쉬운 공간에 특수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전체적인 보편화의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특징을 말한다.

2) 2차원과 3차원의 관계는 건축의 장소적 실현과 전체적 확장으로 진행시키는 개념이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을 내부로 도입시킨다는 장소성과 이러한 영향으로 또한 외부와 실내를 통일시켜 공간적 확장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미니멀리즘 공간의 재료는 물성화와 비물성화의 특징을 지닌다. 물성은 재료가 가지는 순수한 질감, 또한 여기서 느껴지는 단순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 조작으로 확장적 투명성과 환원적 치환을 얻고자 함이 비물성이라 할 수 있다.

4) 미니멀리즘 공간의 빛은 재료의 순수성과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즉, 빛은 공간의 단순한 형태와 디테일을 드러내 주며, 때로는 인위적 허구를 부여하여 공간을 다양한 구성으로 확장시켜준다.

5) Facade와 길 그리고 내부공간과의 상호관계성은 미니멀리즘 공간의 지역적 장소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이 환경에 민감한 대상임을 증명해주며, 나아가 공간 속에 문화적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

6) 미니멀리즘 공간의 대상체와 공간과의 관계는 건축의 관점을 주관적 시각과 객관적 시각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간 속에서는 그 자체가 본질적 체험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으로 공간을 벗어난 대상체는 하나의 독립된 본질로 인식된다는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예술과 공간의 미니멀리즘적 특성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3. 미니멀리즘적 한국성 표현의 분석

3.1. 한국의 미니멀리즘적 공간동향

최근 들어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세기말 한국 건축 및 실내건축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일훈의 '체나눔의 방법론', 민현식의 '비움과 침묵', 백문기의 '골목길', 우경국의 '관계, 흐름, 건축' 등은 미니멀리즘적 분위기가 전통 속에 더 높은 가치로 존재한다는 가설 속에서, 비움과 절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관점과 숭효상의 '빈자의 미학'이나 김인철의 '없음의 미학'과 같이 건축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니멀리즘이라고 인식되는 관점, 등으로 한국현대건축의 분석적 관점이 혼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에 대하여 일부 건축계에선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 버린 '미술사조'를 굳이

<표 1> 예술과 공간의 미니멀리즘적 상관관계

공간에서의 미니멀리즘 특성		불변과 변화의 관계	2차원과 3차원의 관계	공간과 재료의 관계	공간과 빛의 관계	Facade와 길, 내부공간과의 상호관계	대상체와 공간과의 관계	
								단순성 극복을 위한 특수성→보편성
형식적 특성	시지각적 독자성	확장성, 환원성, 전체성, 통일성	☺	☺	☺	●	☺	●
	장소성으로서의 독자성	장소성(실행), 확장성, 전체성	○	●	○	○	●	●
조각과 회화의 3가지 특성	대상의 본질	최소성으로의 환원성	☺	☺	☺	○	☺	○
	중성적 비내구성	순수성, 단순성	☺	○	●	☺	○	○
	확일성과 변화성의 반복	단순성, 다양성 (전체성)	●	○	☺	○	○	○

* 관계성의 정도(上: ● 中: ☺ 下: ○)

12) 임석재, 현대 미니멀 건축의 경향, 건축세계, 1998.8, p.88

건축에 적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도 한다. 물론 예술사 전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전개방식과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은 차이가 있고, 설명 미니멀리즘이 건축에 적용되는 것이 부리가 있다하여도, 일단 미니멀리즘이 최근 우리 건축계에 회자되는 만큼 나름대로의 재해석과 미니멀 실내공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의 미니멀리즘적 공간 경향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미니멀리즘적 건축사례들과 유사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미니멀리즘적 건축가들은 역사적 배경과 작품 속의 전개과정에서 자신만의 접근방법으로 정체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 건축가들이 미니멀리즘을 왜 차용하고 있는지의 질문이다.

<표 2> 한국의 미니멀리즘적 표현의 공간분류

분 류	매개체적 수단	표현요소	표현목적
미니멀리즘 공간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적 요소	미니멀리즘의 본질적 개념 구현
전통적 성향의 미니멀리즘 공간	미니멀리즘	전통적 요소	전통성 구현

이것은 한국건축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미니멀리즘적 공간은 최근 전통적 건축표현의 다원적 의사의 일환으로 미니멀리즘을 차용하고, 또한 그 속에서 전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향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전통의 개념과 그 속에서의 미니멀리즘적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전통의 개념은 이러한 경향뿐만 아니라, 전통성 표현에 관련된 작업에서도 유사한 의미해석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건축에서 전통의 개념을 “유기적 연속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성의 개념을 통일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통의 개념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가 김수근이 “전통이란 산 것이고, 고전이란 죽은 것이다. 전통이란 시간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과정이고, 고전이란 그 흐름 중의 어느 점의 단면 즉, 정지한 점이다.”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¹³⁾ 즉, 종합한다면, 전통이란 복고적 획일성을 배제한, 시간적 망각을 불리일킬 수 있도록 현실에 적합한 “창조적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성이라는 표현보다 과거와 현대를 연속선상의 관계로 보는, 즉 포괄적 의미의 “한국성”이라는 새로운 건축어휘의 개념 속에 전통성 구현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불연속적 과정으로 보고 역사의 단절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통시적(通時的) 측면의 경향이 강한 전통성보다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즉 통시적이고 공시적(公時的)인 측면

13)이종업, 한국실내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5, p.7

면을 강조하는 한국성의 개념으로의 접근을 의미한다.

3.2.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철학적 흐름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경향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건축을 보는 시각인 이일훈, 승효상, 우경국, 김인철 등이 추구하는 한국적 개념에서 재현적 모티브를 찾고 있다. 이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일훈이 주장하는 채나눔의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빠름우선의 가치관을 좀 더 여유있게, 한 템포 늦추어 보자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채나눔의 개념 속에는 채, 틈, 사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벌려진 사이로 보이는 것은 현재 빠름으로 없어진 여유이다. 이러한 여유 속의 즐거움을 택하는 것은 작게 나눌수록 가능하며, 채, 틈, 사이가 최종적으로 불이(不二)에 귀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작게 나누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마치 미니멀리즘 특징의 단순성과 다양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장식하지 않음으로써 장식한다” 또는 드라이(dry)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작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¹⁴⁾인데, 특히 두루그(Droog:건조)디자인의 개념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러한 개념은 김인철의 “없음의 미학”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나누어지는 것은 이미 공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누어질 수 없는 공간을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안과 밖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인식하는 개체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니멀리즘적 공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2차원과 3차원에서의 건물과 실내의 통일성 개념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또한 그가 말하는 없음이란 없고의 상대적인 없음이 아니라 그 접점에서 가능한 절대적 없음을 의미한다. 즉,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공간의 맞닿은 것과 같다.¹⁵⁾ 이러한 없음의 개념은 승효상이 전통건축물인 추사고택과 매월당을 보고 “빈자의 미학”이라고 말한 것에서 더 확장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가난함은 공허함에 대한 가난이요, 정신적 피폐에 대한 가난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가난이지만, 그 가난은 영적으로 가득차 있음이요, 긴장 속의 여유로움’¹⁶⁾이라는 말로써, 본질적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의 개념 속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은 우경국을 들 수 있다. 그는 ‘건축, 관계, 흐름’이라는 책에서 우리와 서구건축의 시간이 다른 궤도 위에서 동시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우리의 이상적 패러다임을 향해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이미 실험되었던 미니멀리즘과 결합되어 나타난 자연주의 바탕 위에서 또 다른 가능성과 예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⁷⁾ 이것은 한국적 미니멀리즘 뿐만 아니

14)함성호, 대담 : 채나눔의 미학, Plus, 1996.1, pp.135-139
 15)김인철, 없음의 미학, Plus, 1998.4, pp.136-137
 16)승효상, 시대정신 : 빈자의 미학, 건축과 환경, 1993.1, p.87
 17)우경국, 관계. 흐름. 건축, 현대출판사, 1998, pp.45-46

라, 과거의 유산이 환기하는 일상적 연상들을 제거하고, 그 문맥은 다른 문맥으로 환치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건축의 과제이며, 미래라는 의미로 종합할 수 있다.

3.3.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가능성과 모순

우리는 건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서구 근대성과 시대정신을 논해야만 하는 것일까? 서구를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재상황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서구 근대성과 시대정신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전통성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철저한 분리의 개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즉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양식적 양태도 한국성으로의 또 다른 접근을 위한 매개체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한국성 재현의 가능성도 퇴색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양태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서도 더 높은 단계의 사고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니멀리즘의 개념으로 출발한다면 우리만의 가치를 이해하는 정확한 시각의 틀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이 미니멀리즘을 한국적 특수성에 적절하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전제가 되어야만 궁극적 목적인 한국적 표현 보다 미니멀리즘을 우선 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입장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적 미니멀리즘에 차용될 수 있는 우리 전통 속에 '차용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적 표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 속에서 시지각적으로 발견되는 미니멀 한 분위기나 대상들이다. 이것은 전통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현존하는 유물들에서 미니멀리즘적 특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즉,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형성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의 본질적 개념보다 더 깊은 가치

를 담고 있는 전통문화의 사상적 측면들이다. 이것은 한국적 정서의 뿌리라 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개념을 공유하는 연속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으로써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즉 전자를 시지각적 대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전통의 사상체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근원이 되는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의 유형 및 무형의 생성은 사상적 배경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서적 측면으로 흡수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사상들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한국전통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우리의 것'을 창출한 것에 있다. 이러한 정서적 측면들이 과거의 전통 속에서 순수하게 흡수된 본질적인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한국적 미니멀리즘이 궁극적으로 차용해야 할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원인에 해당되는 전통사상들과 결과적인 정서적 표현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전통성의 문제는 전자만을 중시한, 즉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 개념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서적 측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 측면만으로 전통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에서, 현실적 보편성에서는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서 원인인 사상적 측면과 결과적 현상인 정서적 측면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현대실내 공간에서의 미니멀리즘적 공간의 특성과 전통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몇몇의 작품에서 그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공간에서의 미니멀리즘적 특성과 현대 작가들의 디자인 전개에 도입하고 있는 전통 사상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으며, 특히 작가가 자신이 발표한 건축철학이나 작품의 표현에 따른 전통적 요소¹⁸⁾를 토대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도식화시킬 수 있다.

<표 3> 한국실내공간의 미니멀리즘적 성향의 작품사례들과 미니멀리즘 공간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작품사례	작가의 철학적 개념	작품의 개념 및 표현	한국전통의 사상적 적용	공간에서의 미니멀리즘적 특성					
				불번과 변화의 관계	2차원과 3차원의 관계	공간과 재료의 관계	공간과 빛의 관계	Facade와 길, 내부공간과의 상호관계	공간과 대상체의 관계
문화공간: 승효상	빈자의 미학	순수성, 여유, 지역성, 보편성(길의 개념)	불교사상의 무욕, 겸손, 소박함, 노자의 무경계성, 음양론의 天, 地, 人의 일원성		●	●		●	●
김옥길기념관: 김인철	없음의 미학	내외부의 연계성, 생략미, 순수성, 상보성	음양오행설, 노자사상의 존재와 무존재	●	●	●	●		
환기미술관: 우규승	비움과 채움	빛의 비움과 채움, 순수성, 직설적 표현	음양오행설, 노자사상, 한사상의 白		●	●	●	●	
宮: 전시형		영원함의 시간개념, 순수성	유교사상의 중용(일상성, 향시성), 한사상			●	●		●
서보 파운데이션: 이현재		여백의 미, 순수성, 흑과 백의 조화	음양오행설, 노자의 존재와 무존재		●	●			●
난겐: 미영범		자연미, 순수성, 간결한 추상성	한사상의 순수성, 유교의 향시성, 도교사상의 實과 虛		●	●	●		●

18)작가의 건축철학 자료나 일반 평론에 기재한 된 것을 수집하여 평가 판단한 설정임.

<표 4> 한국적 미니멀리즘 작품사례의 사상적 영향 분석

작가	공간적 이론	작 품	개념 및 표현	한국전통의 사상적 관계성
승효상	빈자의 미학	문화공간	순수성, 여유, 김의 지역성, 보편성	불교사상의 무욕, 겸손, 소박함, 노자의 무경계성, 음양론의 天, 地, 人 의 일원성
김인철	없음의 미학	김옥길 기념관	내외부의 연계성, 생략미, 순수성, 상보성	음양오행설, 노자사상의 존재와 무존재
유규승	비움과 채움	환기 미술관	빛의 비움과 채움, 순수성, 직설적 표현	음양오행설, 노자사상, 한사상의 白
전서형	無	천년동안도공	영원함의 시간개념, 순수성	유교사상의 중용(일상성, 향시성) 한 사상
이현재	無	서보 파운데이션	여백의 미, 순수성, 흑과 백의 조화	음양오행설, 노자의 존재와 무존재
마영범	無	넌겐	자연미, 순수성, 간결한 추상성	한사상의 순수성, 유교의 향시성, 도교사상의 실(實)과 허(虛)

4. 결론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인 한국적 미니멀리즘은 현실적으로 증명된 논제는 아니다. 즉, 한국적 미니멀리즘이라는 어휘적 근원이나 가지는 건축계에서 보다 60년대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한국회화에서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작가들인 이우환의 '선'이나 박서보의 '묘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회화에서는 한국적 미니멀 작품, 또는 모노크롬적 작품이라는 말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작품의 인정을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우환은 시간의 개념을 중요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시간의 개념을 공간개념, 나아가 장소성으로, 그리고 그 장소의 소멸과 또 다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의 상호 순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작품은 산다는 것과 연관을 짓고, 또한 작품은 사는 방법이며, 작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미니멀리즘적 실내공간의 가능성에서 공간은 생명력을 지니며, 그 공간에서는 사는 방법을 알려주며, 또한 그 공간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하게 한다.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으로부터 현재까지 문화전반에서 발생했던, 또한 다원화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미니멀리즘이라는 비약적 논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표현되고 있는 몇몇의 작품과 이론들이 작가들의 주관적 관점과 작품의 전개를 점검과 논의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 가설적 제안을 보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니멀리즘적 현상이 전통성 논의와 함께 하고 있는 특징들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관계성을 띠고 있는나라는 점도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생한 한계적 문제점은 미니멀리즘 특성의 접근보다는 전통성의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인식에 의한 관계성의

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접근보다는 이와 같이 일부 주장되는 미니멀리즘과 전통성의 관계는 몇몇의 작품과 철학적 개념에서 역설적으로 그 가능성과 모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의 혼재되고 불분명한 미니멀리즘적 흐름을 보다 정확한 인식의 틀과 차용의 가능성으로 다각적인 분석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희량, 현대 버니클라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과 이를 사유화하는 디자인의 작업논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2.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3. 이정옥, 현대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호, 1997.12.
4. 이종엽, 한국실내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5.
5. 안승홍, 현대 조경설계에서 미니멀리즘의 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6. 임종엽, 신-합리주의 이후 이탈리아 현대건축과 미니멀리즘의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7호, 1998.
7. 유방현, 현대건축의 비판적 지역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12.
8. 김인철, 없음의 미학, Plus, 1998.4.
9. 승효상, 시대정신 : 빈자의 미학, 건축과 환경, 1993.1.
10. 윤영진외 1, 노자사상의 유기적 원리를 통한 건축공간구성분석, 대한건축학회, 1997.
11. Amos in Tiao chang,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윤장역, 지분당, 1996.
12. M. Merleau - Ponty, 현상학과 미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7.
13. Ignasi de sola Morales Rubo, Mies van der Rohe and Minimalism, The Presence of Mies, Detail Mertins and Princeton Architeural Press. N.Y., 1994.
14. James Steele, Architecture Today, Phidon press, London, 1977.
15. Javier Mozas, The technological choice as an outline on the world, A+T, 1997.9.
16. Javier Mozas, Transparency and Modernity, A+T, No7, 1996.
17. Babara Glauber, Introduction, Life and Seperate: Graphic Design and the Vernacular(N.Y.:The Herb Lubalin Study Center of Design and Typography, 1993.
18. Battcock, Gregory, 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E.P. Dotton & Co., Inc., 1968.

<접수 : 1999. 9. 22>